

## 2016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인문학/사회과학인재계열) 면접구술시험 문제

### [수험생용]

#### ●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제시문 1>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해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해 관계도 고려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존중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이다. 합리성의 발전과 종교적 선(善) 의지의 성장에 따라 개인의 이기심이 통제될 수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면 모든 개인과 집단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개인 수준의 도덕성과 집단 수준의 도덕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인간 사회의 집단적 이기심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경우,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의 이기심만이 이를 통제할 수 있다.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만이 아니라 강제력에 의한 방법이 병행되어야 이러한 견제 역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은 '정의'이다.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자기주장, 반대, 강제, 그리고 어쩌면 분노까지 포함하는-높은 도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절대 승인하지 않을-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기심과 사회적 이익,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사실상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드러나는 이기주의에 비해 훨씬 더 강한 이기주의가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드러난다.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때로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향은 개인 관계에 비해 집단 관계에서 현저하게 약화된다. 인간의 집단적 행동 중에는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이나 양심에 의해 완전히 통제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이 때문에 인간 사회의 정의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에는 반드시 '정치'가 필요하다.

##### <제시문 2>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의 연구가 지난 20년간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인간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개인은 집단 안에서 자기 자리를 확인하거나 한껏 누릴 때 가장 보편적인 기쁨과 만족감을 느낀다. 인간의 선행과 악행, 그 모든 행동의 첫 번째 동기를 우리는 인간의 사회성에서 찾아야 한다.

사회성은 우리의 본성을 이루는 요소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가 권장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과 집단의 기대를 최대한 충족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사회에 편입되고 싶어서 욕망을 버린다. 우리는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는 집단의 도덕적 척도에 따라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집단에 더욱 단단히 결속된다.

집단의 도덕적 성향에 따라 우리는 타인을 돌보기도 하고 손에 무기를 들기도 한다. 집단의

도덕성이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선’과 ‘악’이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근거가 빈약한 ‘깃발’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단의 도덕성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품기보다는 명철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도덕성은 더욱 완전해질 것이다.

### <제시문 3>

노비는 특하면 남에게 신세타령을 늘어놓곤 했다. 그리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달리 뵈족한 방도가 없기도 했다. 한번은 어진 사람을 만났다.

“선생님!”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두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렸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사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 끼니는 하루에 한 끼를 때울까 말까 하답니다. 그것도 강냉이죽으로요. 그깟 강냉이죽! 개, 돼지도 거들떠보지 않을 겁니다. 그마저도 손바닥 크기의 그릇으로 달랑 한 그릇뿐이죠.”

“참으로 불쌍하군.”

어진 사람은 애처로운 듯이 말하였다.

“그렇지요!”

그는 마음이 밝아졌다.

“밤낮으로 쉴 새가 없어요. 아침에는 물을 길어야 하고, 저녁에는 밥을 지어야 하고, 낮에는 심부름에 헐떡이고, 맑은 날에는 빨래하고, 굶은 날에는 우산잡이가 되고, 겨울이면 탄불 피우랴, 여름이면 부채 부쳐 주랴, 밤에는 밤참 만들어 주인님 마작하시는 방에 들여보내랴. 그런 데도 땀 한 뼘은 고사하고 돌아오는 건 매타작뿐이니…….”

“쫓쫓, 저런…….”

어진 사람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슬이 맺히는 듯하였다.

“선생님, 이러니 대관절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어요? 무슨 다른 방도가 없을까요? 전 어쩌면 좋지요?”

“머지않아 분명 좋게 될 것이네.”

“정말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께 제 괴로움을 하소연하고, 선생님이 저를 동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낫네요.”

그러나 이삼 일이 지나자 노비는 다시금 마음이 언짢아져 또다시 신세타령을 늘어 줄 상대를 찾아 나섰다.

“선생님!”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시다시피 제 집은 외양간만도 못하답니다. 주인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저보다 강아지가 몇 천 배 더 귀여움을 받지요.”

“이런 멍청이!”

듣던 이가 소리를 질러 그는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였다.

“선생님, 제 집은 고작 개집 같은 오두막입니다. 춥고 빈대까지 우글거려, 자려고 하면 여기 저기 물고 생난리지요. 썩은 냄새로 코가 막힐 지경이고요. 창문 하나 없는 데다…….”

“주인한테 창문 내 달라는 말도 못 해?”

“안 될 말씀이지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가 보자.”

어리석은 자는 노비의 집으로 향했다. 노비의 집에 이르자마자 다짜고짜 흙담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려는 겁니까?”

“자네한테 창문을 내 주려고 그러는 게야.”

“안 돼요! 주인님께 혼납니다.”

“괜찮아!”

그는 벽을 허물었다.

“누구 없어요! 강도가 집을 부셔요! 빨리요, 집 다 부서져요.”

그는 울부짖으며 펄쩍펄쩍 뛰었다.

노비들이 우르르 몰려와 어리석은 자를 쫓아냈다.

소동을 알고서 주인이 천천히 나타났다.

“강도가 집을 부수려 했습지요. 제가 소리를 질러, 저희들이 함께 몰아냈습니다.”

노비는 공손하게, 그러면서도 자랑스러워하면서 아뢰었다.

“그래, 잘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그날,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노비를 위로해 주었다. 그중에는 어진 사람도 있었다.

“선생님, 이번에 제가 공을 세웠답니다. 주인님께서 칭찬해 주셨지요.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머지않아 잘될 거라고요. 그 말이 딱 들어맞았지 뭐예요.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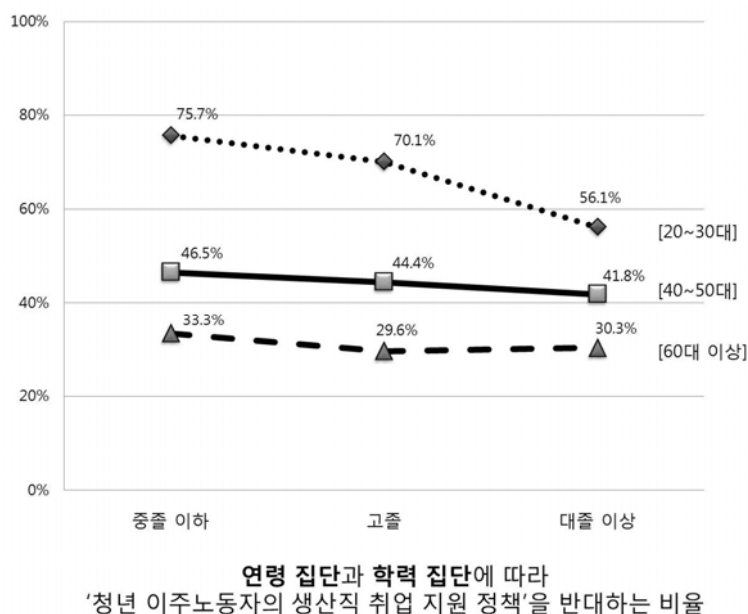
꿈에 부푼 듯, 그는 유쾌하게 떠들었다.

“암, 그렇고말고.”

어진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덕택에 자신도 유쾌하다는 듯이.

#### <제시문 4>

다음은 도시 A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느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1. 다음 두 항목을 기준으로 제시문 1번과 제시문 2번의 주장을 비교·분석한 후 차이점을 구술하시오.

- 1) 개인 수준의 도덕성과 집단 수준의 도덕성 사이의 관계
- 2)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2. 다음 <보기>는 제시문 3번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제시문 1번과 제시문 2번의 주장이 어리석은 자와 어진 사람 가운데 각각 누구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지 선택하고 그 근거를 구술하시오.

<보기>

노비의 주인은 벽을 무너뜨린 자를 고발한 노비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방에 창문을 만들어주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리석은 자와 어진 사람이 서로 자신의 공이라 주장하였다.

어리석은 자: 내가 벽을 부수지 않았다면 자네는 창문을 얻을 수 없었을 거야.

어진 사람: 자네가 불평하기보다는 결국 주인을 믿고 따라서 선행을 행하니 이런 복을 받게 된 게야.

3. 제시문 4번의 그림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1번의 주장을 평가하시오.